

| 권두언 |



박명준

본지 편집위원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시동 걸린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순향을 바라며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2004년과 2008년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개최되고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그 중심에 있다. 아직까진 다소 더딘 느낌도 든다. 대화의 새싹이 조심스럽게 움트고 있긴 하지만 당장 획기적인 무언가가 나온 건 아니다. 태어나려는 자는 알을 깨뜨려야 한다고 했던가.

우리의 사회적 대화는 늘 딜레마에 처해 왔다.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개혁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대표자들은 모이지만, 끊임없이 제기되는 현안은 대화의 발목을 잡곤 했다. 현안의 뒤치다꺼리에 빠지다가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어렵고, 새로운 그림만 그리다가는 한가한 놀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올 봄의 노사정대표자회의도 마찬가지였다. 근로시간 단축법안,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제조업 주요 기업들에서의 이리저리한 구조조정 등이 먹구름으로 몰려 왔다. 정부정책과 개별 기업 노사관계는 모두 시동을 걸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흐름과 아직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지 못하다. 사회적 대화가 주요 현안을 담아서 해결책을 만들어 내기는 아직은 이르다. 그릇을 굽는 일과 요리를 하는 일을 병행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노사정대표자들은 안개 속 지뢰밭 위를 어깨동무하고 걷고 있다. 그래도 조금씩 전진해 가고 있다. 4월 초 사회적 대화기구의 새로운 상에 대한 의견을 조정해 가면서 제2차 대표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상징인 이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하는데 사실상의 의견일치를 보았다. 의제별 위원회, 업종별 위원회, 연구회 등도 대표자 회의 체제 내에 두어 내용 있는 대화를 시작해 나가기로 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를 향한 공동의 산고(産苦)가 이어지고 있는 시간, 노사정위원회는 여기 격월간 〈사회적 대화〉 3+4월호를 발간한다. 지난 1+2월호의 출간 이후 편집진에게는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사회적 대화가 원래 이렇게 어려운 것이냐’,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발간하는 책인데 대통령이 과연 읽고 이해를 하겠느냐’는 지적과 함께, ‘대답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글들의 호흡이 너무 길어서 끝까지 읽지 못하겠다’, 내지는 ‘왜 들여쓰기가 없냐, 답답하다’는 비판에 이르기까지...

편집진은 그 모든 다채로운 지적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달게 받고 3+4월호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4월호의 키워드는 ‘짧고 다채롭게’이다. 글의 분량을 가급적 줄였고, 다양한 주제로 챕터를 구성했다. 신생 매체로서 조금씩 진화해 가고 있다는 걸 독자들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사무처인 노사정위원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부의 노동정책의 추진전략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한 노사관계 주체들의 미래의 바람직한 관계형성을 위해서도 현재 우리가 주목할 가장 중요한 사회적 대화의 장은 노사정대표자회의이다. 지난 격월간 〈사회적 대화〉 1+2월호에서부터 1차 대표자회의의 의미를 보다 심도 있게 조명했어야 했는데 미

흡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번 호부터 격월간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관한 내용을 최우선에 두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주요 사실들을 소개하였고, 1,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 모두의 의미를 조명해 보았다. 나아가 외부전문가(장홍근)에게 의뢰하여 지금의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의의와 그 나아갈 바에 대한 전문가적 기대를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다.

<기획대담>에서는 최근 단행된 노동시간 단축 입법에 대해서 그 의미를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가들과 노사단체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번 개혁의 역사적 의미와 향후 후속적으로 도모되어야 할 정책과제들,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회적 대화의 전개상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대화 논단>은 네 명의 전문가들로부터 다채로운 주제를 놓고 그들이 기대하는 사회적 대화의 전개에 대한 의견을 담아 보았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이제 구체적인 의제별 논의들이 진행되려 하는 중에 4차 산업혁명, 사회안전망, 산업안전, 노동기본권 등 크게 네 가지 주제가 우선 논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호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사회안전망, 두 개의 주제를 놓고 사회적 대화가 어떻게 전개될 필요가 있는지 전문가들(이창곤, 오건호)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에서 중요시해야 할 주제로 지역과 업종, 이른바 중위수준(meso-level)에서의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가 보편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호에서는 각각 지역별 그리고 업종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두 학자(황한식, 조성재)의 의견을 소개한다.

미조직 취약층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고민, 그리고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방향을 조심스럽게 <좌담>에 담아 보았다. 그간 청년일자리 문제를 놓고 고민과 실천을 해 온 다양한 젊은 전문가들과 실천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연초에 노사정위원회는 두 차례의 의미 있는 토론회를 기획하여 개최했다. 하나는 노사정위원회 출범 2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지향적으로 <포용적 노동체제의 비전과 새로운 사회적 대화>라는 제하에, 이 시기에 왜, 그리고 어떤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토론을 진행

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노동존중사회에 관한 전문가들의 식견, 그리고 그것을 놓고 전개되어야 할 사회적 대화에 관한 의견들을 교환하는 토론회였다. 격월간 <사회적 대화>에서는 이 내용들을 간추려 지상에 담았다.

바야흐로 구조조정의 여파가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속에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글로벌 자본 GM과 관련한 논란을 중심에 놓고 군산과 전북에서 처방을 고민하고 있는 두 전문가들(김현철, 이호근)의 견해를 각각 기고와 인터뷰의 형식으로 담아 보았다. 향후 구조조정에 대하여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전개해 갈지에 관한 논의의 출발로 삼을 수 있겠다.

그 밖에 현장에서 듣는 사회적 대화로 기업사례를 소개하였고,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정책 스케치 코너를 신설해 이번 호에서는 네덜란드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SER의 이모저모를 부드럽게 조명해 보았다. 사회적 대화의 국제동향에 대한 코너도 신설해 유럽 주요국들의 동향을 읽을 수 있는 자료들을 번역하여 게재하였다.

창간호에서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기 위한 다채로운 시도들이 다소 번잡하고 가볍게 느껴지 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읽고 생각할 거리들을 꽤 담았다고 자부해 본다. 한 호, 한 호 더 발전하는 격월간 <사회적 대화>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여기 우리의 두 번째 노동의 결실을 세상에 내놓는다. 독자들의 관심과 애정 어린 피드백을 기대할 따름이다.

2018년 4월 광화문에서